

미래에셋, 개발업체 지분·레지던스 개발 등 경도 투자 '도마'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 "땅매입 회사 지분 절반 박현주 일가 소유" 강정희, 오늘 1184호실 규모 경도 레지던스 송곳 검증 펴 듯

미래에셋그룹이 추진하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전남도의회 도정질문 현장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예정된 도정질문에 연일 여수 경도 이슈가 도마 위에 올라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자, 투자를 유치한 전남도는 진화에 나서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우선 올 하반기 관광테마시설 및 5성급 호텔 조성을 위해 4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표문은 지난 6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열었다. 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도 개발을 위해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지난 2016년 와이케이디벨롭먼트(YKD)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면서 "YKD 주주명부 분석결과, 미래에셋컨설팅(주)이 50%, 싱가포르 회사

로 알려진 기업이 50%를 소유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48.63%, 부인이 10.24%, 두 명의 박 회장 자녀가 각각 8.19%의 지분을 갖고 있고, 박 회장의 4촌 내 혈족 3명이 5.69%, 1.37%, 1.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4촌 이내 친족지분이 91.86%에 달하는 사실상 가족 기업이다"고 설명했다. YKD 지분을 소유한 싱가포르 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그 회사가 지분을 팔 경우 여수 경도는 박 회장 일가의 개인 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민 의원은 이에 더해 "경도에 연륙교가 들어선 후

개발예정부지 가격은 10배 이상 크게 오를 것"이라는 여수 부동산업계의 소문을 언급하면서 "미래에셋이 레지던스를 짓는데만 열을 올리고 관광시설 등 단지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민이 이 사업을 과연 진정한 투자로 생각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지역사회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박현주 회장에게도 전달도 했다"며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을 믿고, 전임 지사(이낙연)때 이뤄진 일이지만 믿고 가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박 회장은 경도에서 나온 이익금은 여수와 경도에 모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중요한 건 지속가능한 관

광단지 조성과 운영"이라고 진단한 뒤 "레지던스를 우선 추진해 의구심이 제기되지만, 필요할 경우 직접 지도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체 투자금액 1조 5000억원 가운데 28.7%인 4300억원을 올 하반기 투입해 관광테마시설 및 5성급 호텔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레지던스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애초 약속한 관광시설 투자를 서두르는 모양새다. 8일에는 강정희 의원(민주당·여수 6)이 경도 해양관광단지 관문인 연륙교 진입부에 미래에셋측이 추진하는 지상 29층 규모의 타워형 레지던스 1184실(11개동) 건설 사업에 대해 검증을 베풀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AI헬스케어, 에너지, 데이터 응용분야 10개사와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102~111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형 실리콘밸리 '광주 밸리' 조성 작업 속도

시, AI헬스케어 등 10개사와 협약 인재 육성·일자리 창출 적극 협력

광주형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연이어 유치하면서 광주형 실리콘밸리인 '광주 밸리' 조성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는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 전문기업인 ㈜감성텍,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에이치엠이스퀘어,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 전문기업인 ㈜에니트,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 전문기업인 ㈜코어다트랩, 인공지능 기반 응용 분야 전문기업인 ㈜비티비엘, ㈜씨노우, ㈜와이어즈, ㈜트리티움, ㈜퍼플옵션 등 10개 기업과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공지능 관련 111번째 업무 협약이다. 기업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전문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관련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과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추진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서 인공지능 분야 선두기업으로 반드시 성장하겠다"면서 "인공지능 전문 인력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상상력과 창의력만 있으면 언제든 창업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광주의 문을 두드리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2021년 기술장 공모 제조업 분야 5명 이내 선정

광주시는 "지역 제조 현장에서 신망받는 중소기업 우수 기술인을 대상으로 '2021년 광주광역시 기술장'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관내 중소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활성화에 제안 실적이 우수하거나 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절감에 공적이 있는 기술인이다. 광주시는 각 기업체, 업종별 협의회 등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5명 이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술장에게는 기술장패와 함께 분기별 50만원씩, 3년간 총 60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술장 추천을 희망하는 기업체 등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에서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30일까지 시 기업육성성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추석 농축특산물 원산지 단속 전남도·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농축특산물을 구입하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8일부터 17일까지다. 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유통업체, 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 판매·가공업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업체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 특산물 등 식품 선물꾸러미와 사과, 배, 밤, 대추, 육포 등 제수용품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에 중점을 뒀다. 관련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공품 651개 품목과 음식점의 경우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 쌀, 배추, 고춧가루, 콩 등 10개 품목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광주형일자리 첫 차 '캐스퍼' 마케팅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의 아름다운 양보와 협력으로 탄생한 GGM이 지역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자랑스럽게 첫 차를 생산한다"면서 "대한민국 제1호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첫차 캐스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

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GGM에서 생산된 차량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에 전력을 다해줄 것"이라며 "향후 생산 차량의 다변화와 친환경차 생산에서도 GGM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관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가 광주형일자리 사업으로 탄생한 현대자동차의 소형SUV인 '캐스퍼' 마케팅에 나섰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들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시작한지 6년여 만에 오는 15일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1호차인 '캐스퍼'가 출시된다"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기원

